여시아문

이 달 의 책

임제록 강의 상, 하

독특한 선풍으로 일세를 풍미했던 임제 의현(臨濟義玄, ?~867).

'견성성불(見性成佛)'과 '무위진인(無位眞人)'의 임제 의현의 가르침은 한국불교에 '조계종'이라는 뿌리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고 이기영 박사의 『임제록 강의』는 생전(生前)의 학문적 열정과 심혈을 기울였던 불교 연구의 한 면을 보여 주면서 후학들에게 채찍질이 되고 있다.

이기영 지음
A5신 370, 400쪽
값 9500, 10000원
한국불교연구원

만행 ·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1, 2

현각 스님이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진리를 찾아 걸어온 이야기. 미국의 전형적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원을 졸업하고 숭산 큰스님의 가르침을 계기로 출가하고 수행하고 있는 현각 스님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다.

숭산 큰스님의 영어 법문집인 『선의 나침반』의 국내 출판을 앞두고 출간되는 이 책은 서양인의 눈에 비친 한국불교의 모습을 통해 미래의 비전이 바깥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현각 지음
A6 250, 236쪽
값 각 7000원
열림원

길을 찾은 사람들

앞서 살다 간 성현들의 삶은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

이 책에는 그런 성현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원효에서부터 만해 한용운, 도산 안창호, 공자, 맹자, 육조 혜능, 조주 선사, 간디, 네루에 이르기까지 먼저 '길을 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가득하다.

진리와 영원한 생명을 말하던 그들의 삶과 숨결이 새로운 길을 찾아나서는 이들에게 반가운 이정표 구실을 할 것이다.

김홍호 지음
A5신 336쪽
값 9800원
솔

누가 문화재를 벙어리기생이라 했는가

수많은 문화재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진열장 안에서 조용히 관람객들을 맞으며 문화재에 얽힌 역사적 내력이나 그 문화재를 소장했던 소장자들의 사연은 점점 잊혀지고 있다.

이 책은 문화재에 얽힌 수많은 일화들을 소장자들의 증언과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토대로 재구성하고 있다. 함들었던 근현대사를 거치면서도 온전히 살아남은 명품들을. 문화재로부터 한걸음 물러나 있던 일반인들도 좀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계희 지음
A5신 282쪽
값 9000원
다른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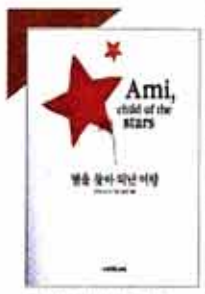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강해

『금강경』은 대승 경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경전이다.

인류 최고의 지혜를 금강경에서 발견했다는 도올 김용옥은 이 '강해'에 평생의 종교적 체험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의 투철한 탐구정신과 해학하고 절박한 언어 구사를 간날 수 있다. 늘 거칠고 파격적인 언어 구사로 세간에 화제를 뿌려온 도올 김용옥의 『금강경강해』는 불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전해 준다.

김용옥 지음
A5신 408쪽
값 9800원
통나무



별을 찾아 떠난 여행

순진무구한 어린 소년 페드로와 낯선 곳에서 온 그의 친구 아미가 하룻밤 사이에 겪게 되는, 약간은 허무맹랑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던 어떤 진실을 알게 해주는 책이다. 그 진실은 '사랑만이 행복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한다.

사랑뿐만 아니라 공기처럼 너무 흔해서 때때로 그 가치를 잊고 지내는 것들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데, 때묻지 않은 동심이 그립거나 현대 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 이들은 한번쯤 읽어볼직한 따뜻한 이야기이다.

엔리케 바리오스 지음
황성식 옮김
A5 반양 160쪽
값 6800원
나무심는사람

겸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

금강산은 신산(神山), 화엄불국세계, 풍악, 개골, 열반, 지달 등으로 불리면서 일만이천의 화강암봉이 기기묘묘한 자태를 뽐내는 아름다운 명산이다.

조선 성리학을 이념 기반으로 하여 조선 고유 문화가 절정기였던 진경시대에 겸재는 우리 산천의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진경산수화라는 기법을 찾아냈다. 평생을 금강산 그림에 주력했던 겸재의 금강산 사생 답사를 따라가다보면 금강산 일만이천봉을 함께 여행할 수 있다.

최완수 지음
A5신 반양 320쪽
값 15000원
대원사

원효어록 100선

원효 스님의 저서는 그 양에 있어서도 방대하지만 경율론(經律論) 삼장을 분석하고 인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명쾌함과 창의성은 독보적이다.

이 책은 현존하는 20부 23권의 원효 스님의 저서 가운데 특정 부분만을 발췌하여 편저자 나름대로 일반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을 붙였다. 또 편저자는 부분적으로 발췌하다보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된 부분도 있음을 솔직히 시인하고, 이 책을 전문 서적이 아닌 교양 서적으로 읽어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이영일 편저
B6 양장 246쪽
값 10000원
불교춘추사

무염국사 無染國師

신라 구산선문 중의 하나인 성주산문(聖住山門)의 개조인 무염국사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무염국사는 불교와 조사선의 차이점을 구분한 독특한 선사상을 남겼고, '해동의 성자'로도 불렸으나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책은 성주사지(충남 보령)에 있는, 최치원이 쓴 무염국사 비문을 해석한 것으로 신라말 혼탁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선의 계승에 힘썼던 무염국사의 역사를 복원하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

한정섭 지음
A5신 344쪽
값 8000원
불교통신교육원

◀스테디셀러 찾아가기▶

한산시寒山詩

김달진 역주 / 최동호 해설
세계사 / 값15,000원

먼저 한산자(寒山子)의 시 한 수를 보자.

내 집은 진정 숨어 살기 좋아라. / 안과 밖 두루두루 세상 티끌 멀리했네. / 풀밭을 거닐다가 절로 길이 되었구나. / 구름을 바라보다 이웃으로 삼으니, / 노랫소리 돕기에는 새가 있으나 / 법의 뜻을 물으려니 사람이 없네. / 아아, 오늘의 이 사바나 무여(娑婆樹)여 / 너는 몇 해를 한 봄으로 삼으려나!

숨어 살며 도 닦는 이의 심경이 그림처럼 펼쳐지는 시라 하겠다. 이미 공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난 그는, 시간으로부터의 초탈을 꾀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를 허물고자 하는 것이다.

『한산시(寒山詩)』는 달리 『삼은시집(三隱詩集)』이라고도 불린다. 한산자(寒山子)의 시라 전해지는 3백 수 외에 풍간(豐干)의 시 2수와 습득(拾得)의 시 50여 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 사람 모두는 전설적인 인물이다. 그들의 실재를 알리는 전기적 자료들도 신빙성이 거의 없다. 그렇다고 시를 통해 유추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다. 불교적인 교훈시가 있는가 하면 승려를 비판하는 시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교의 주술성을 비판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사상적으로 불교를 택한다. 불로장생이나 연금술 따위의 현세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교의 헛된 집착을 조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한 편을 보자.

내 이 세상 돌기 삼십 년 / 그 동안 헤매어 돌기 천만 리. / 강으로 나갔더니 푸른 풀 우거지고 / 국경에 이르매 붉은 티끌 아득했다. / 핫되이 약 만들어 신선도 구해보고 / 부질없이 시도 짓고 책도 읽었다. / 이제 비로소 한산으로 돌아와 / 개울을 베고 누워 귀를 씻노라.

한산이 돌아온 그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불성이라고 말하기에도, 마음자리라고 말하기에도 마땅치 않다. 문장 자체에 아취(雅趣)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산의 시는 결코 수사(修辭)에 매몰되지 않는다. 거기에 바로 한산시의 매력이 있다. 그는 천상, 수행자이면서 시인이고 시인이면서 선사이다.

다시 그의 시 한 귀퉁이를 엿본다.

아아, 두려워라 삼계(三界)의 수레바퀴 / 생각생각 쉬지를 못하는구나. / 겨우 거기서 벗어났다 했더니 / 어느새 다시 잡기고 마는구나.

그렇다. 삼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모든 인간은 구도자일 수밖에 없다.

문제학 / 도서출판 여시아문 편집장 jh yun@buddhapia.com

불교 출판계 소식

새로운 독자 개발에 힘써야…

불교 출판의 역사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며 『고려대장경』도 불교 출판 문화가 낳은 역사적 산물이다. 이러한 불교 출판의 역사는 곧 우리 나라 출판의 역사이다. 이렇게 우수한 역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불교계 시장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불교계 출판사의 경영 전략이 일반 출판사보다 크게 뒤떨어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제는 많은 출판사들이 도서 출판에만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기획과 다양한 홍보에 커다란 비중을 두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달력 제작, 선물용 각종 소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이렇게 긴박한 도서 판매 전략을 바탕으로 홍수처럼 쏟아지는 무수한 책 속에서 불서는 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교계 출판사들의 새로운 시각이다. 불자만 독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누구나 독자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독자는 상품에 따라 얼마든지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점 기획과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불교계 출판사들의 영세한 재무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많지만 가장 급선무가 바로 시장 확장이다. 무한한 출판 거리를 갖고 있는 불교 출판이 독자 개발을 위해 확고한 전략을 편다면 현재보다 훨씬 나아질 것은 분명하다.

장만 독서

석굴암 그 이념과 미학

성낙주 지음
박정훈 사진
A5신 반양 260쪽
값 12000원
가야고원 펴냄

석굴암에 대한 찬사는 무수히 많지만 실제로 그 아름다움은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석굴암은 그 유명세에 걸맞는 관련 서적을 갖고 있지 못하다. 더구나 학술서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들을 위한 감상 차원의 안내서는 거의 없다.

이 책은 철저하게 감상자의 시각에서 쓰여졌으며, 독자들은 토함산 밑자락에서부터 석굴암 내부를 휘돌아 나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저자와 동행하듯 밟도록 되어 있다. 또한 106컷의 도판 자료가 실려 있어 석굴암의 미를 감상하기에 충분하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석굴암의 창건 동기와 그 주체에서부터 석굴암 전체 구조와 낱낱의 조각상들을 관통하는 미학적 주제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 총체적으로 바라보려는 보기 드문 시도라는 점이다.

석굴암이 호국 사찰임을 거부하고 '김대성 설화'의 재해석을 통해 원효의 참회 및 화쟁 사상이 그 미학적 뿌리를 이루고 있음을 최초로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석굴암에 대해 전 세계의, 전 인류의 보물이라고 자랑만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석굴암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은 늘 지지부진한 현실에 대하여 안타까워한다. 또한 몇몇 사안에 대해 상식에도 값하지 못하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석굴암 연구와 발전을 가로막아왔다면서, 편견을 거두는 열린 자세만이 석굴암학의 부흥을 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석굴암을 전 세계의, 전 인류의 보물이라고 자랑만 요란하게 할 것이 아니라 석굴암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연구하고 보존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국철학회 지음 / A5신 448쪽
값15000원 / 예문서원

이 책을 말한다

『 역사 속의 중국철학 』
우리의 시각으로 살펴본 중국 철학사

김중근 기자

동양의 사상을 이끌어 온 중국. 그들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 동안 우리는 장대년 · 풍우란 등의 대가나 중국의 유명 대학과 연구소에서 출간된 중국 철학사를 주로 접해왔다. 우리 손으로 직접 써 낸, 제대로 된 중국 철학사가 없기 때문이다.

이 책 『역사 속의 중국철학』은 중국 철학을 연구하는 우리 나라 소장 연구자 16명이 짜집기를 탈피해 일관된 관점을 세워 연구한 성과물이다. 노학자의 오랜 학문 여정 끝에 나온 산물이 아니어서 무르익지는 않았지만 의욕과 열정이 가득 찬 젊은 연구자들의 땀흘린 노력으로 이루어낸 작업이기 때문에 그 흔적이 곳곳에 묻어나 있다.

이들은 각 분야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했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전공 연구자들이어서 거대한 중국 철학사를, 일관된 체계를 지니면서도 여러 각도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독자들은 한 권의 책 속에서 다양한 철학의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철학사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철학사는 두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다. 그 하나는 공자와 맹자에서 주희로 이어지는 '도통의 역사'를 강조하거나 노자와 장자에서 곧바로 현학으로 이어지는 단순한 끈 잇기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과 같이 관념의 전개를 중시하는 철학사이다. 또 하나의 사상은 생산력이라는 물적 토대 위에 올려놓고 철학을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 역사로 규정하는 철학사이다.

이 양 극단을 달리는 두 관점의 철학사는 모두 각각의 맹점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역사라는 객관적 조건은 배제한 채 관념의 철학사를 전개함으로써 '꿀 역사성'이라는 함정에 빠져 있고, 후자는 성긴 그물로 자신들의 철학사를 유물론과 관념론의 투쟁 역사라는 획일화된 이론 틀 속에 넣은 결과 중국 고유의 사상적 특성을 놓치고 있다. 즉 중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보편성이라는 이름 아래 서구 중심의 틀로써 철학사를 재단하려 한 것이다.

『역사 속의 중국철학』은 이런 반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중국 철학을 역사라는 무대 위에 올려 놓았으나 그물코를 촘촘하게 덧댐으로써 중국의 특수성과 그 속에서 전개된 사람들의 삶을 빠뜨리지 않으려고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선진 유가부터 모택동주의까지 중국이 걸어온 격변의 시기를 조명하고 그 위에서 전개된 사상들을 투시해 보려고 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중국의 현실에 가장 맞닿아 있으면서도 그 동안 중국 철학사에서 소외되었던 현대 신유가나 모택동주의에 대해서 지면을 할애해 소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5 · 4운동 이래 동서 문화 논쟁과 인생관 논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현대 신유가나 현재의 중국을 잉태한 모택동주의를 살펴보는 것은 사유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벌거벗은 채로 나가면서 한편으로 전통과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오늘날의 중국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만하다.

이 책은 중국 철학을 연구해 들어가는 연구자들의 관점과 태도가 개별 철학자 중심의 단계에서 벗어나 좀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좋은 실례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

5 · 4운동 이래 동서 문화 논쟁과 인생관 논쟁을 거치면서 형성된 현대 신유가나 현재의 중국을 잉태한 모택동주의를 살펴보는 것은 사유체를 법적으로 인정하면서 세계 자본주의 질서에 벌거벗은 채로 나가면서 한편으로 전통과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는 오늘날의 중국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만하다.

여시아문 추천 법공양 도서

1. 만물은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 신술래 지음/ A5신 206쪽/ 솔리/ 값 7,000원
2. 잡초는 없다 — 윤구병 지음/ A5신 262쪽/ 보리/ 값 6,800원
3. 영원한 자유 — 성철 큰스님 지음/ A5신 330쪽/ 장경각/ 값 6,000원
4. 장자가 노자를 이야기하다 — 임어당 지음, 장순용 옮김/ A5신 332쪽/ 자작나무 값 8,500원
5. 위대한 영혼의 스승이 보낸 63통의 편지 — 간디 지음, 라다크리슈난 엮음, 이재경 · 유영호 옮김/ A5신 484쪽/ 지식공작소/ 값 12,000원
6. 인생을 건너는 지혜의 징검다리 — 구보 순료 지음, 남지연 옮김/ A5신 256쪽 일출 / 값 6,500원
7. 오래된 미래 —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지음/ A5신 204쪽/ 녹색평론사/ 값 5,000원
8. 숨어 사는 즐거움 — 허균 지음, 김원우 옮김/ B6 236쪽/ 솔/ 값 5,800원
9. 원효 — 고영섭 지음/ A5 292쪽/ 한길사/ 값 8,000원
10. 함께 사는 아름다움 — 정화 지음/ A5신 388쪽 /시공사 / 값 10,000원

여시아문 통신

현대불교신문의 불서 정보란 '여시아문'에 신간 소개를 원하는 출판사에서는 보도 자료와 함께 신간을 보내 주십시오. 좋은 책이 독자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여시아문 편집부 —

통신판매 전화나 팩스로 주문하시면 전국 어느 곳이나 우송해 드립니다.
* 8,000원 이상은 우송료 무료

여시아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732-1521
팩스: (02)737-0696